



(사)세기총, 제2회 다문화가정부모(가족)초청 행사' 개최

5월 12일 낮 1시 30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환송식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시영목사)(이하, 세기총)는 2016년 5월 2일(월) ~ 12일(목)까지 10박 11일간 제2회 다문화가정부모(가족)초청 행사를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목사),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목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5월 2일 대회 첫날 새벽 4시, 몽골 다문화가정 부모(가족)들의 입국을 시작으로 7개국 72명의 해외에서 오신 부모님(가족)들과 105명의 국내 가족 및 행사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 모인 가운데 나라별로 입국할 때마다 환영식을 가졌다. 입국 환영행사는 대표회장 고시영목사가 환영의 인사말씀을 원종문목사, 김희신목사, 박광철목사가 안전하게 입국한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였고, 기념촬영 후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따라 버스로 이동하여 서울 시내 관광과 점심 식사를 하고 경기도 양지 파인리조트에 여장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6시 30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목사)에서 공식 환영찬을 가졌다.

(3면에서 계속)

CTS, 동작구 독거노인 초청 <따뜻한 봄나들이> 개최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나눔 실천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 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나눔을



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지역 어르신들은 먼저 CTS 노랑진 본사를 견학하고, CTS소울라이어 공연을 관람한 뒤, 크리스천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서울운전기사선교회 택시 50대를 타고 일진각 일대 와 육군 제1사단 운천대대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점심식사, 병영탐방 및 군악대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날 자원봉사로 참여한 서울운전기사선교회 김기복 회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동참한다는 그 자체에 저희 선교회 모든 회원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계속 봉사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정만기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CTS가 마련해 줘서 너무나 고맙고, 알찬 일정 속에서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게 되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부대 방문을 소개해준 육군 1사단 운천대대 김종석 대대장은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국가 안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부모님들 자주 모셔서 좋은 말씀도 듣고 식사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CTS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날 계획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공주박물관에서 촬영한 금귀고리



삼국시대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백제시대의 어느 장인이 자신의 모든 정성과 기술을 다해 이 물건을 만들었을 것, 대단히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훌륭한 작품이다. 그러나 그 물건을 만들었던 사람도, 그리고 그 물건을 귀에 장식했던 사람도 지금은 뼈 한 조각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만든 이 귀고리는 그 색깔과 모양은 조금도 잃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금이 귀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본다.

성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는 사람의 벽이 모두 금으로 되어있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법궤를 비롯하여 그곳에서 사용되는 모 기구들도 예외 없이 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귀할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 아마도 그래서 믿음을 금에다 비유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도 역시 금으로 표현되는 모

양이다.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영원히 지켜 나가야 하겠다.

대기협 사진작가 곽완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2016. 여름수양회 서천유수호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 9편 1절)

2016년 목회자부부 여름 수양회 공고

1.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16년 총회 교역자부부 수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알리며 공고합니다.

- 일시 2016. 5월 30일(월)-6월 1일(수)
- 접수시간: 5월 30일 오후 5시~오후 6시까지 완료요망.
- 개회예배 및 특별기도회 5월 30일 오후 8시(식사 후)
- 장소: 서천 유수호텔(원장 황형식 목사)

충남 서천군 장항산단로 34번길(041-965-0003)

- 찬조금 및 회비: 1인 60,000원(부부 2인 1실 사용, 140,000원)
- 각 노회장과 서기는 참여 의사 및 명단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람(객실 배정)
- 자세한 것은: 대회사기 김관호 목사 010-7788-0092

총회총무 조영만 목사 010-5355-2584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김관호 목사
(세광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 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 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제22차 비평과논단 신학포럼 개최

“조용기 목사, 한국교회 난국 타개 위한 롤모델에 가장 부합”

조용기목사목회연구회와 (사)기독교개혁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비평과논단이 주관한 '제22차 비평과논단 신학포럼'이 조용기 목사에 대한 재평가를 주제로 열렸다.

(사)기독교개혁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첫 발표한 박수철 목사(전 최자실금식기도원 원장, 전 뉴욕플러싱스북음교회 담임)는 “근간에 조용기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기사와 SNS글이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조목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이고, 그 증거는 회생·헌신·섬김”이라고 했다.

박목사는 조용기 목사가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부터 사비로, 교회 규모가 커진 뒤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큰 규모로 교계와 사회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600여 곳에 800여 선교사가 조용기 목사의 선교 철학에 따라 파송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용기 목사를 고발·고소하는 사람들은 신앙적 동기가 아닌, 사랑이 없는 정의를 외치는 부류들”이라고 했다.

서영곤 박사(전 국민일보 전산기획실장, 성결대·백석대·한양대 서울사이버대 교수 역임, 기독교리서치연구소 소장)는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시계제로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생존과 재부흥을 위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 된다”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롤모델로서, 전대미문의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이루



고 한국교회 위상 및 조국의 국격을 높인 조용기 목사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영곤 박사는 조용기 목사의 리더십의 원천으로 영성, 강력한 소명, 확고한 큰 비전, 희망, 송고한 야심 등을, 그 특성으로 영원한 혁신가, 카리스마적 신본주의자, 성공한 세계적 경영자 등을 꼽았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와 교계는 대형교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지적하면서 조용기 목사의 사역과 자산과 업적까지도 무분별하게 비판했다”며 조목사에 대해 긍정적 재조명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성표 박사(국제복음주의신학회 부회장, 예명대학원대학교 교회사 외래교수, 기장)는 “과거 절망과 어둠에서 신음하던 한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 그 자체였다”며 “역사 수난의 극복의 희망과 가능성,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기고 있다”면서도, “이 점을 보완한다면 영산(조용기 목사)의 미래는 전이적이고 통합적인 복음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러한 복음의 통합은 한국교회 미래에 희망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경직 박사(기독교개혁운동협의회 대표회장, 비평과논단 발행인)는 “조용기 목사님 등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 때문에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죽었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부흥운동과 교회 성장을 이끌고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조용기 목사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포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성표 박사(기장, 예명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서영곤 박사(기독교리서치연구소 소장), 박수철 목사(전 오산리교회자실금식기도원 원장),가 발제자로 나왔다. 발제자 외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호선 서울순복음교회 목사(미주지역 순복음총회 총회장 역임), 김창영 (새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 대표, 신학수 전 부산장신대 교수, 김재용 전 성결대 이사장, 유홍욱 성결교신학대학원 원장역임, 서진경 박사(한국목회연구원 원장), 강준호 기독교언론협회장, 한용관 기독교시민연대 부산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독교시민연대뉴스

제1회 한기총 대표회장배 불링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19일 (화) 오전 남영불링센터(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3)에서 “제1회 한기총 대표회장배 불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불링대회에는 한기총 회원교단 및 단체에서 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선수들은 나이별로 임마누엘 그룹(50세 이하), 에벤에셀 그룹(51-60세), 할렐루야 그룹(61-70세), 마라나타 그룹(70세 이상) 총 4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 결과 △마라나타 그룹 1위 이광선 목사, 2위 한나동 장로, △

(개혁총연), 2위 배진구 목사, △ 에벤에셀 그룹 1위 최충하 목사, 2위 신인창 목사(웨신총회총무) △ 임마누엘 그룹 1위 강일만 목사(웨신), 2위 박진섭 목사가 각각 차지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영육간의 건강함이 필요한데, 특히 육체의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영적인 일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불링대회를 통해서 한기총 회원교단 및 단체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쟁 속에서도 화합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로 막을 내렸다.

중국, 교회철거 항의한 목사 부부 불도저로 ‘생매장’

지역개발 이유로 교회철거 밀어부친 중국 당국의 책임 커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도를 넘고 있다. 수천개의 교회 십자가 철거를 비롯해 이번에는 교회철거에 항의하는 목사부부를 불도저로 밀어서 생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허난성의 모회사 교회철거팀들이 지난 14일 목요일 교회 철거에 항의하는 목사와 그의 부인을 불도저로 구덩이에 몰아넣고 흙으로 생매장했다고 중국 지역언론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목사는 겨우 탈출했지만 그의 부인은 끝내 구조되지 못해 직사사 했다. 이들 부부는 그동안 교회철거를 중단해 달라고 중국 당국에 청원해 왔다고 China Aid가 밝혔다.

사건은 지난 14일 중국 당국으로 용역을 받은 회사가 불도저를 추미야양 베이투 교회에 보내 철거를 시도했다. 중국당국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 재개발을 위해 교회를 철거하려했다고 한다.

China Aid에 따르면 당시 불도저 앞에 서서 강력하게 교회 파괴를 막으려했던 리 장웅 목사



저 일행 중 한 명이 “내가 책임질테니 그들을 물어라”라고 했다가면서 반드시 부인의 죽음에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China Aid와의 인터뷰에서 안전규칙 위반과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별히 이 사건관련해서 폭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China Aid 대표 Bob Fu 는 숨진 Ding Cuimei는 “매우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밝히고 이번 끔찍한 매장은 ‘소름끼치는 살해행위’라고 비난 했다. .

또 China Aid에 따르면 남편 리가 “경찰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 것은 내 아내가 이미 살해

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도착했고 이는 매우 보기 힘든 경우”라고 하여 경찰의 방조를 의심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수천개의 교회 십자가가 철거되었으며, 지역의 교회감시자들에게 의해 목사들의 체포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도어선교회 David Curry가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중국내 기독교인들이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원이란 점을 인정하고 중국정부가 기독교인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광식 기자

한교연 장애인연합예배 및 문화축제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4월 28일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와 문화축제 행사를 가졌다.

한교연 장애인권익위원회(위원장 김양원 목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신망에 재환원을 비롯, 복지재단 엘리엘동산, 호세아동산, 베데스다선교회, 두리일, 반월의 집, 참누리요양원, 한마음 일터 등

장애인단체와 교회 장애인부 소속 장애인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주제로 개최됐다.

1부 예배는 준비위원장 유석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환영사에서 “흔히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라 칭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불리를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들 보다 열등하거나 모자라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장애인들을 동정의 대상이나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로써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눠지고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양원 목사는 설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한교연 장애인권익위원회는 불구자 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장애우는 “장애인”으로, 정상인 성한 사람은 “비장애인”으로, 절름발이 반신불수 곱추 등은 “지체장애인”으로, 난쟁이는 “저신장애인”으로, 장님 봉사 소경은 “시각장애인”으로, 귀머거리는 “농인”으로, 병어리는 “언어장애인”으로 문둥이, 나병환자는 “한센인”으로 언어를 순화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빕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press@hanmail.net / jtntvcj@naver.com



태백성시화운동본부 창립대회 개최

태백기독교연합회가 산파역할...초대 본부장에 오대석 목사 위촉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무연탄 생산 1위의 도시, 산소의 도시인 강원도 태백시는 1980년대 초까지는 인구 12만 7천명의 도시였다. 그러나 1980년 중후반 들어서면서 탄광 폐광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지금은 인구 4만 6천 명의 소도시가 되었다. 태백의 62개 교회가 인구 5만 명 회북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시민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깨끗하고 범죄 없는 태백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태백성시

화운동본부를 설립했다. 태백 교회들은 지난 1일 태백 루아교회(담임 목사 안동기)에서 태백성시화운동본부 설립예배를 드렸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민들레기도팀장 최호자 권사, 홍보대사 조혜수(바이얼니스트)를 비롯해 태백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배는 최상규 목사(태백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시민중앙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유영래 장로(태백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박성을 안수집사(태백성시화운동본부 회계, 황지교회)의 성경봉독, 조혜수 홍보대사의 특별 연주와 루아교회 찬양대의 특송에 이어 김준철 목사(태백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큰소망교회)가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본문으로 “함께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태백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한 오대석 목사(태백순복음교회)는 “부족한 중에

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상수가 없다.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태백성시화운동본부는 대표회장에 김준철 목사(태기연 회장), 태백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단을 공동회장으로 위촉했다. 부대표회장은 박하중 목사, 본부장 오대석 목사, 사무총장 최상규 목사, 사무국장 김흥렬 목사, 감사 김도권 목사, 서기 김옥기 집사, 회계 박성을 안수집사가 맡았다. 또한 지도목사로는 민들레기도팀 최준만 목사, 복음화운동팀 마대원 목사, 교육훈련팀이강선 목사, 기독교문화팀 안동기 목사, 사회봉사팀 지호규 목사, 팀장 최상봉 장로를 위촉했다.

한편 태백성시화운동본부의 산파역할을 한 태백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월 18일 태백 황지교회(김종언 담임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를 초청해 성시화운동 설명회를 들은 데 이어 3월 19일에는 태백 시민중앙교회에서 김철영 목사를 초청해 성시화운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창립을 준비해왔다.

인천 동암역 밥퍼목사 배정진 목사, 광장교회 설립예배드려

인천 동암역에서 건물 없는 광장교회의 밥퍼목사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배정진 목사는 지난 4월 23일(토) 오전 11시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범로 484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광장교회를 설립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설립예배는 총신중앙교회 담임인 박창근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목양교회 배영수 목사가 대표기도를, 진실교회 김재홍 목사가 행20:24절 본문을 가지고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 신대원 동가들이 봉헌 찬양을, 산소망교회 최준근 목사가 봉헌기도를, 중앙노회장 정서영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중앙노회장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장교회가 인천시 부평구 백범로 484(십정동)에서 배정진 목사를 담임교역자로해서 2016년 4월23일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라고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최준근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노회장 이 교회설립 인정증서 수여를 하였다.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신 가운데서도 원근각처에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성도님들의 배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광장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 크게 확장되며, 복음 사역에 크게 사용되기를 기도해 달라하고, 그동안 광장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역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했다.

인천 광역민 기자

1면에 이어

사) 세기총, 제2회 다문화가정부모(가족)초청 행사’를 개최하다

5월 12일 낮 1시 30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환송식

환영만찬은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세기총 상임회장 원종문목사의 개회기도, 한기총 사무총장 박종선목사의 내빈소개, 행사진행위원장 박광철목사의 행사소개, 세기총 대표회장 고시영목사의 대화사, 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목사의 환영사, 행사준비위원장 소강석목사의 “그리스도안에서의 한 몸 되는 사회”라는 주제의 설교, 사회자가 다문화가정 소개를, 세기총 초대대표회장 박위근목사와 한교연 초대대표회장 김요셉목사의 인사, 서울특별시 박원순시장의 영상축사, 7개국 다문화가정을 대표하여 베트남에서 시집 온 소유란씨의 감사 인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라별로 친정 부모님께 큰절을 인사하며 부모님께 케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이어 세기총법임감사 김준규장로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도, 세기총법임이사 유영식목사의 만찬 기도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어 새에덴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찬을 나누면서 새에덴교회 공인팀의 위로공연을 지켜보면서 자리에 함께 한 모두가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고 만찬이 끝난 후에는 새에덴교회에서 준비한 값진 선물을 다문화가정과 부모님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 자리에는 교계지도자들 및 다수 언론사와 자원봉사자 및 새에덴교회 당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가운데 마쳤다.

둘째 날(3일)은 강한 바람과 우천관계로 오전 중에는 숙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

였다.

셋째 날(4일)은 오전에는 용인 한국민속촌을 오후에는 남산 서울타워를 관광한 후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해외에서 오신 부모님들에게 각 개인별로 10만원의 격려금을 드리고 서울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집에 가기 위한 장소에서 가정별로 해산 하였다.

한편 제2회 다문화가정부모(가족)초청 환송식은 12일 낮 12시,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목사)에서 마련한 중식과 선물 그리고 환송식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버스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나라별로 출국수속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순간까지 함께 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고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나도 당신에게 당신이 되고 싶소...”

수용자 수기 쓰기, 독후감 시상식 후 위로공연 가져

경북북부 제 2교도소(소장 민육기)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90여 분간 열린 행사에서 많은 감동과 은혜의 장이되었다. 이날 수용자수기 쓰기 및 독후감 시상식과 공연은 동기관 기독교부와 위원 이기학 목사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상자는 최우수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노력상 3명, 독후감부분 최우수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을 선정하고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영치금이 격려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날 수상자 중 어느 한 수용자는 출소 4개월을 앞두고 20년 만에 찾은 어머니에게 앞으로 정말

도하면서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눈물로 고백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수용자는 박법신의 ‘당신’이란 저서를 통해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당신이 되고 싶다’면서 눈물을 흘려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아울러 본소 민육기 소장은 격려사에서 ‘수용자들이 수기와 독후감에서 고백한대로 살아간다면 인

생역전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는지라도 이제는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 갈 것이라며 격려하고,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며 약속했다.

2부 순서로는 축하공연에서 가수 길건, 최금비, 한보영 등이 빅마마의 ‘Break away’와 다수의 노래와 동방현주 ‘사랑’, 김동현의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를 부르면서 수용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길건은 짧은 간증을 통하여 수용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시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열심히 감사하면서 산다”고 말에 수용자들은 박수로서 감사를 표현했다.

이날 모든 행사를 끝으로 경북북부 제 2교도소 사회복귀와 전제성 과정은 ‘수용자들에게 생활 수기를 쓰게 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시상을 하니 수용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비전을 심어 주는 것 같다’며 감사했다. 이기학 기자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통

상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했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가지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 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 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여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정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주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꺾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후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강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강도사: 정정훈 이진영 전도사: 장성철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부이사장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학병회	토요일 5:00
수요 예배	오후 7:30	청년회	토요일 6:00
새벽 예배	새벽 5:00	여전도 구역예배	금요일 11:00
금요철약예배	별 9:00	남전도 구역예배	매일토요일 6:00

◇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 있는 교회
설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16039)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 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 http://jlcn.kr ☎ 031)424-7621, H.P 010-4436-7060

트루먼 카터 클린턴 그리고 트럼프?

70년 고질병 공짜와 의타심, 네 탓 습성을 버리고 내 책임 내 능력으로

2016년 11월 8일 결정 될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결판이 날 것이다. 대선에서 승자가 결정되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 그 동안 어떤 변수가 생겨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른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 되는 경우 한미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만약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될 경우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 미군 철수, 한미방위조약 무효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FTA 무효화, 북한 남침 불관여, 듣기만 해도 끔찍한 발언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여지도 없지 않다.

민약 천박한 부동산 졸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2류 국가로 전락하고 미국 정부는 3류 막가파 정권이 될 것이다. 미국 국민이 선택 위싱턴 정치에 신물이 났다고 할지라도 트럼프의 막말에서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이상으로 미국을 2류 국가로 깨꾸러트릴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 패망 후인 1945년 9월 8일 38선 이남 일본군 무장 해제와 한시적 군정 실시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첫발을 디디м로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미국은 1949년 6월 30일 한국 주둔 24군단을 완전 철수하면서 일단은 한국과 거리를 두게 됐다.

그러나 주한 미국이 완전 철수한지 채 1년이 안 된 1950년 6월 25일 새벽, 휴가지에서 잠자리에 틀려다가(현지시간 6.24 밤 9시) 북과 김일성의 전면 남침 했다는 국무장관의 보고를 받은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단 10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개자식들을 저지 하라!"고 지시함으로서 한미 관계가 되살아났다.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UN 군이 편성되면서 1950년 7월 7일 UN 군의 일원이 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UN 군 사령관 겸 미군 사령관에게 통합되면서 한미 양국의 행방관계가 짝뿔 것이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따른 대책으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 된 이래 지난 63년 간 유례가 없이 강력한 한미 동맹이 유지된 것이다.

한미 동맹이 크게 시련을 겪은 것은 북한 김일성에 대하여 막연한 호감을 가지

고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을 혐오하던 무명의 민주당 조지아 주지사 출신 지미 카터가 주한 미군 철수 공약을 내걸고 제 39대 미국 대통령(1977~1981)에 당선되면서 한국 안보에 일대 시련이 닥쳐왔던 것이다.

땅콩 농장주 출신 카터가 한반도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할 자료는 없지만, 1972년 미국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한 달간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했던 워싱턴포스트 기자 켈리그 해리슨이 1974년에 주장한 주한 미군 철수와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글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원광대 교수 이주천)하는 게 고작인 것 같다.

여기에서 주목할 바는 허버트 해리슨이 언론인으로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도쿄에서 워싱턴포스트의 동북아 지역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처음 방문한 이래 김일성이 미 의회에 편지를 보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한반도로부터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한 직접 협상을 제의(1973)하던 시기에 총 11번이나 평양을 드나들었다는 점이다.

소위 북한의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에 따른 국제 혁명 역량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 지역장인 해리슨 기자를 중점 포섭했을 것이란 점은 짐작을 하고도 남을 노릇이다. 만약 김일성에게 완전 포섭 된 해리슨이 미국 대통령 꿈을 꾸는 조지아주지사 카터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어 주고 미군 철수와 한국 인권 문제 압박이라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도록 공작하는 게 불가능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79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한 카터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노골적이고도 조롱에 가까운 언사로 박정희 정권을 코너로 몰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6.25 당시 미 CIA 한국 지부에서 근무한 특수진 및 비밀 공작 배테랑으로 알려진 주한 미군 참모장 상글러브 소장이 카터의 포퓰리즘 철군 정책에 대하여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1977.5.18)에서 "몇 년 전 낮은 정보에 입각한 것으로 최근 정보를 경시하고 주한 미8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만을 켜다."고 주장함으로서 3월 만인 5월 21일 해임 본국으로 소환된 후 이듬해 4월 강제 전역을 당하는 소신파가 있어 카

터의 일방적 철군 정책을 무산시킨 사실이다.

한미 동맹이 뿌리채 흔들리고 크게 후퇴할 뻔 했던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 된 한미안보연례회의(SCM)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램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3월 15일 까지 한국으로 전환기로 합의하고 연합사 해체를 가시화 했던 것이다.

한미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 된 제46차 SCM에서 한미군 국방장관과 적 해이글 미 국방장관이 2020년 이후로 사실상 무기 연기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권의 민족주의로 가장한 종북 성향



으로 인해서 반짝같이 다져졌던 한미 동맹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당시 김영삼은 1994년 6월 16일 새벽 영빈 행거지에 대한 외과 수술(북쪽)을 제안하는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클린턴 대통령,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우리 60만 군대는 한 명도 못 움직입니다."라고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자랑스럽게 적고 있다는 사실에는 실소를 금치 못할 노릇이기도 하다.

그러던 김영삼이 2008년 4월 말 경 주한 미국대사 버시바우와 오찬을 하면서 "그 때(1994.6.16) 미국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북핵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후회하면서 "돌이켜 보건대 폭격을 하라 했으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2008.4.29 미

대사관 전문)이라고 미련을 표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이는 군복무 기피자라는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자신의 군번이 E-134라고 우겨댄 김영삼이 얼마나 무지하고 황당한 '갑상적 민족주의자'였으면, 얼떨결에 전쟁이라면 지레 겁을 먹는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저지른 과오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핵전쟁 위협과 북핵 위협을 안겨 줬다는 사실이다. 그에 반하여 간단한 외과 수술로 북핵을 제거하려했던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왜 일까?

북핵 위기가 북쪽을 향해 치달던 1994년 6월 16일 천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카터가 미국 정부의 동의도 없이 평양에

서 김일성과 만나 '남북 정상 회담' 용의라는 매력 있는 카드를 들고 6월 18일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을 방문, 김영삼을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낯시 밤으로 유혹하여 궁지에 몰린 김일성에게 북쪽위기를 모면하고 핵개발 시간을 벌도록 거간질을 했다는 사실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북핵과 관련 북쪽을 반대한 일치기 민족주의자 김영삼과 무턱대고 퍼주기로 핵실험 뒷돈을 대준 김대중의 반역과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붉히며 북핵을 번분"해 준 노무현의 이적 행각 등 북핵만 생각하면 부끄러운 민주화 대통령 3대에 치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 하겠다.

그에 반하여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나라 코리아를 살리기 위해 잡자리에서 즉각 파병을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 휴전 협정에 따른 안보상 허점을

메우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한 반도 안보의 기틀을 마련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한국을 대신하여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쪽까지 결심했던 클린턴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이다.

그런데 2016년 1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전박한 선동가인 부동산 졸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결정 되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또 한 번 시련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 마당에 카터의 무모한 철군 정책을 되돌리게 한 상글러브 소장처럼 식견과 소신을 갖추고 트럼프에게 직언을 할 장군이 있겠는가 하는 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 되느냐 아니 되느냐 보다 미국에서 카터 이후 35년 만에 금기시 되다시피 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에 대하여 안보 무임 승차와 FTA 협정 파기를 위협하면서 북한의 핵전쟁 협박에 "미국은 모른다. 핵무장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무책임한 주장과 배타적 태도를 보인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하여 스스로 2류 국가로 전락하고 최소 4년간 막가파식 저질 대통령 3류 정부 때문에 미국의 위신과 미국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트럼프의 막말에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깨우칠 부분은 깨우쳐야 함 또한 물론이다.

먼저, 연합군의 승리로 8.15 해방도 공짜, 6.25 전쟁도 미국을 비롯한 UN 군 덕분 공짜, 밀가루 옥수수가루 탈지분유 구호품도 공짜, 율산 신선호의 자갈 컨테이너박스 수출 사기도 정부의 수출 금융 덕분에 공짜, 심지어는 쌀 주곡 자급도 군인 학생 노력 지원과 면서기들의 노동력 관능(勤農) 덕분에 공짜, 어린이 기저귀도 공짜, 초중고 아이들 점심도 공짜, 박원순의 취업준비 청년 월 50만원 6개월 연 300만원 지원도 공짜, 고질이 된 공짜 병(病)과 거지 근성부터 버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가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도 한미 연합으로 공짜, 핵문제도 미국과 6자회담으로 공짜, 도대체 공짜 말고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2015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02~2012년 간 세계 각국의 GDP대비 국방비 지출 통계에 따르면 핵전쟁 위협 아래 있는 분단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GDP대비 2.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반하여 세계최강의 국방력을 보유한 미국은 GDP대비 4.3%를, 아랍의 포위 속에 생존해 몸부림치는 이스라엘은 GDP대비 6.9%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25 남침 전범 김일성은 물론,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호전광(好戰狂)들의 소름끼치는 발언을 요약해 보면, 김정일이 1995년 5월 초(5.10 외신보도) "힘 시기에 출로(出路)는 전쟁밖에 없다"며 "20%가 행복해 진다면 80%가 죽어도 좋다"면서 '핵개발을 강조하는 새로운 전쟁을 지시' 했는가 하면, "미제를 때려 눕히고 조국을 통일하자면, 어느 때든지 한 번은 놈들과 맞서 판가리(판가름)싸움을 하여야 한다"고 지시(2010.5)한 바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하고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신설, 부위원장에 임명 된 김정은이 "인민군 성원들은 자나 깨나 전쟁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며 풀뿌리를 깨어 먹으면서라도 싸움 준비를 완성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2010.12.30)"고 다그 쳤는가 하면, "전군이 김정은 무력통일 구상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2012.4)"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도 최대 이스라엘 수준으로 GDP대비 6.9%, 최소 미국 수준으로 GDP대비 4.3% 정도로 국방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當爲性)은 부인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아이들 무상급식보다는 소총 한 자루, 탄약 한 박스를 늘리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대한민국 안보 분단 증액 요구가 거세 질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 국민도 70년이 넘는 '공짜 병'과 '미국이 있는 데 뭘'하는 의타심을 버리고 카터 닷, 트럼프 닷 보다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난관을 헤쳐 나간다는 결의와 각오 그리고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자칫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를 '天下雖安忘戰必危 (천하수안 망정필위)'라는 경구(警句)가 지금처럼 절실할 때가 올 줄이야!

백승묵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2기 실천목회연구과정 학생모집

기독교와 성경은 복음이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갈6:14)고 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본 과정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전합니다. 핵심만을 알기 쉽게 전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경건, 거룩)이 덧입혀집니다. 세계 신학계가 1,000년이 넘게 논쟁해온 성령론, 구원론 등 기본적인 교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조명합니다.

1. 입학 및 수강등록안내(여름학기)

- 접수 및 등록: 총신대학교 사회교육대학(구.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le.chongshin.ac.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가입 후 "전문교육아카데미"에 들어가서서 '수강신청하기-교회교육-목요일'에 들어가시면 '실천목회연구'가 나옵니다. 수강신청 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수강등록이 완료됩니다. 입학원서는 개강시 당일에 작성하여 담당 교수에게 제출(사전 2매)
- 수강등록기간: 5월1일~31일까지

2. 개강 및 수업기간

- 개강일: 2016년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까지 수업(참고:오후에는 1기생 심화반 수업 진행됨)

- 수업기간: 6월 9일~9월 1일까지(3개월), 가을학기(9~11월까지 이수해야 졸업)

3. 입학대상 : 지도자급 직분자, 신학희망자, 장로, 신학생,

전도사, 목사,/(남여, 이단제외)

4. 모집인원: 30명(선착순으로 마감)

5. 등 록 료: 1학기당(3개월) 38만원(카드결제 가능)

- 홈페이지 수강신청 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온라인 카드 결제
- 홈페이지 수강신청 후 교무처(제2종합관)에 방문하여 단말기 카드 결제 가능)

- ▣부부 등 2명 이상 직계가족 등록시 1명은 30% 할인 (추후 장학금 신청)

6. 특징 :

- ▣수료와 동시 한국실천신학연구원(대학원과정)졸업증서 수여
- ▣수료자에게는 총신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개혁주의성경신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케이블TV방송 부흥협의회 회원자격 및 활동지원

7. 기타 :

상담을 원할 시에는 담당교수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간증】

전0영목사(1기,현재 수강중)
주님과 의 첫사랑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실천목회연구반에서 깨우친 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깊은 진리 속으로 저의 영을 인도해 갑니다.

인0숙전도사(1기,현재 수강중)

세상의 유희와 시련으로 광야생활을 하다 보니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죄를 용서함 받았으나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능력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쳤는데도 풍성한 기쁨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실천목회과정에 강의를 통해 저의 영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났고, 처음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0희목사(1기,수강중)

강의를 듣고 집에 오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고 기뻐서 점점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대화가 생동감있게 변화되었고, 나 자신은 물론 전화상담, 가족과의 대화, 남편과의 대화, 말씀 배,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자연까지도 영적인 관계가 소통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하여 신자들을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깨우침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사회교육대학

(대학 교무처) 02-3479-0625 | (담당교수) 010-5525-818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제2종합관) <http://le.chongshin.ac.kr>

호헌총회 “제13회 신학포럼” 성황리에 성료

주제: 신학과 문학의 만남

예장(호헌)총회(총회장 한홍교, 포럼운영위 대표회장)는 지난 4월 1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신학과 문학의 만남]이란 주제로 “제13회 호헌 신학 포럼”을 개최했다.

강사인 예영수 박사는 오랜 세월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는 인물로 국제 크리스천 학술원장과 국제교회선교단체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맡고 있다. 오전 10:30분부터 오후 4:30까지 4부로 진행된 신학 포럼은 1부 개회예배, 2부 애찬나눔, 3부 강의, 4부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장 한홍교 목사는 “매년 교계 석학들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신학 포럼이 금년에 13회가 되었다며, 그동안 몰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교단산하 목회자들과 신학도들에게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의에 나선 예영수 박사는 ‘오래 전 객진 목사가 말하기를 ‘목회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즐거움으로 목회할 것을 당부하면서 ‘문학’은 성경해석과 설교에 적용할 수 있고, 히브리서의 배경에는 플라톤 사상의 영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플라톤의 영향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다면서, 헬라적인 사상을 모두 이단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의의 주요 핵심은 어거스틴의 신의도성, 괴테의 파우스트, 폴터 포럼은 1부 개회예배, 2부 애찬나눔, 3부 강의, 4부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로 시작되었다. 오동환 목사는 “오늘은 신학과 문학의 만남의 날이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포럼운영위 공동회장 이형규 목사, 봉헌기도에 포럼운영위 회계 최선희 목사, 격려사에 동문회장 조조리희의 영원한 현재,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재론, 토마스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존밀턴의 실낙원, 오이디푸스신화 등을 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해보았으며, 신학을 함에 있어 문학과 철학은 성경이해에 큰 보조적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로 시작되었다. 오동환 목사는 “오늘은 신학과 문학의 만남의 날이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로 시작되었다. 오동환 목사는 “오늘은 신학과 문학의 만남의 날이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회 결의로서 칼빈주의에 입각한 기독교학문연구와 그 실천방법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개교하였고, 초대학장으로 박병훈 목사가 취임한 이후 많은 학장들과 교수들의 헌신과 수고로 신학부 60회 대학 30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포럼 행사를 위해 새생교회(한홍교 목사), 창녕교회(조조복 목사), 나누리교회(오동환 목사), 호산나교회(김진숙 목사), 열방선교회(이형규 목사), 새생기도원(도값음 목사)이 특별 후원했다.

호헌총회신학교는 1962년11월 총

회 결의로서 칼빈주의에 입각한 기독교학문연구와 그 실천방법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개교하였고, 초대학장으로 박병훈 목사가 취임한 이후 많은 학장들과 교수들의 헌신과 수고로 신학부 60회 대학 30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포럼 행사를 위해 새생교회(한홍교 목사), 창녕교회(조조복 목사), 나누리교회(오동환 목사), 호산나교회(김진숙 목사), 열방선교회(이형규 목사), 새생기도원(도값음 목사)이 특별 후원했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로 시작되었다. 오동환 목사는 “오늘은 신학과 문학의 만남의 날이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로 시작되었다. 오동환 목사는 “오늘은 신학과 문학의 만남의 날이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로 시작되었다. 오동환 목사는 “오늘은 신학과 문학의 만남의 날이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한기보, 제1회 신학세미나 열어 참석자들 크게 도전받아

서구 기독교의 몰락은 성경말씀인 원형(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14층에서 한기보 신학위원회(위원장 한홍교 목사)주최로 제1회 한기보 신학세미나를 개최하고 많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기보 신학위원회 한홍교 목사의 개회 선언과 이의근 감독(자유칼리브 감독)의 기도, 한기보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지 대표회장은 역사적 보수를 지향해 왔던 서구 기독교가 오늘날 폐쇄와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형(본질)에서 벗어났고, 그 결과 서구 기독교는 하나님이 떠난 종교로 전락되었다면서 이 일을 위하여 본 협의회 산하 기관인 신학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근 목사(평양신학교 학장)는 이날 성경의 본질을 찾아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1강의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을 기록한 그 종 선지자의 의도를 알 것과 히브리서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또한 김길종 교수(토라신학 학장)는 제2강의에서 “구약에 나타난 창조 목적”에 대해 주제를 정하고 ‘창세기의 시작



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창조된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완성’이며 결론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오셨고,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단장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하는 삶이라고 했다.

끝으로 3강의에서 객연민 목사(예복부흥신학 학장)는 “WEA와 반대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WCC, WEA는 그릇된 단체라며 꼬집고 이는 서구에서 물려온 쓰나미인데 이를 저지하고 한국교회를 보호하지는않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WEA에 깊이 관여해 있는 이단 논란이 있는 장모 목사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미흡과 이번 한국에서 열린 WEA 세계 지도자 대회에 기자들의 출입을 차단, 통제한 것은 국제행사에 걸맞지 않은 것이며 이는 WEA에 대한 의혹만 깊어지게 만든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WEA의 정체는 ‘신복음주의, 천주교에 대하여 포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교회의 연합을 분열케 하고, 서구의 잘못된 신학사상으로 한국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영적 쓰나미로 한국교회를 침몰시키는 행위이기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이들의 작태를 목과할 수 없어 다시한번 WEA 반대를 재차 첩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의 내빈과 신학위원회를 소개하고 통성기도를 끝으로 폐회했다.

당진성시화운동, 이수훈 본부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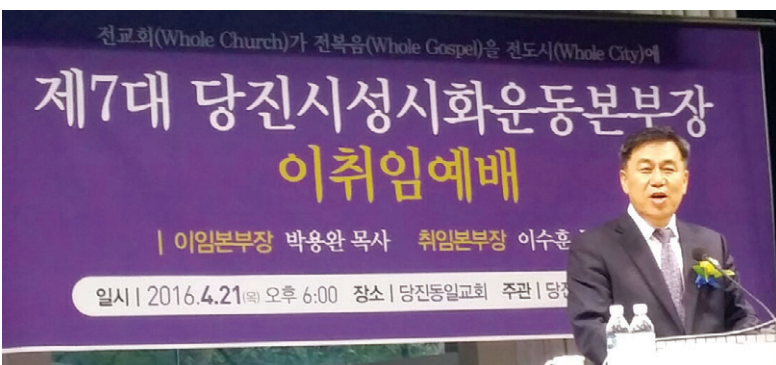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성시화사업 최선 다하겠다”

충남 당진시 성시화운동본부 제7대 본부장으로 이수훈 목사(동일교회)가 취임했다. 당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6시 당진 동일교회에서 본부장 이수훈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당선자,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 당진시 목회자와 성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장승현 목사(평안장리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호일 목사(송정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우정권 권사(현대제철 기독교순회장)의 성경봉독, 상대목, 김영은 집사(동일교회)의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사도행전 8:4-8절을 본문으로 ‘성시화운동은 하나님 나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하나님나라운동”이라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성시화운동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운동”이라며 “한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힘을 모아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역을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1906년 미국의 아주사부흥운동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고 소개하는 한

편 “1974년 엑스포를 통해 받은 성도들이 5만9천 마리로 흠어져 복음을 전했을 때 1년 만에 110만 명이 결신을 했다. 이는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자고 도전했다.

최태순 목사(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 열린 이취임식에서는 왕현정 장로(담동감리교회)의 사회로 우경식 목사(당진성결교회)가 내빈 소개를 했고, 전임 본부장 박용완 목사에게 신임 이수훈 본부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용태 공동총재

회 결의로서 칼빈주의에 입각한 기독교학문연구와 그 실천방법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개교하였고, 초대학장으로 박병훈 목사가 취임한 이후 많은 학장들과 교수들의 헌신과 수고로 신학부 60회 대학 30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포럼 행사를 위해 새생교회(한홍교 목사), 창녕교회(조조복 목사), 나누리교회(오동환 목사), 호산나교회(김진숙 목사), 열방선교회(이형규 목사), 새생기도원(도값음 목사)이 특별 후원했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로 시작되었다. 오동환 목사는 “오늘은 신학과 문학의 만남의 날이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로 시작되었다. 오동환 목사는 “오늘은 신학과 문학의 만남의 날이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로 시작되었다. 오동환 목사는 “오늘은 신학과 문학의 만남의 날이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신학과 문학의 만남은 신학의 깊이를 더하고, 문학의 감성을 높여준다.”



Amazing! 사흘 동안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내리는 은혜와 진리는 내 인생, 내 목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놀라운 시간이였다

인터네셔널
조에 38기

강사도 울고
회중도 울었다!

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강사: 강성기 목사 • 미국 예수복음교회 담임
• 로고스성서학원 원장
• 조에인터네셔널 회장

• 저서: ■ 성령의 열매 ■ 다 이루었다(Ⅰ, Ⅱ)
■ 예수의 피를 힘입어
■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 전도, 이렇게 하면 된다.
■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의욕은 바닥을 치고 목회는 사망진단을 받았다.
3박4일 조에 인터네셔널을 통해 부여받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태동처럼 내 심령을 뒤흔들고 지나갔다.
지금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으며 성령도
건축하게 되었고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에는 내 목회의 절대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조에 8기 이 목사-

목회자는 자기 모습과 목회 현장을 돌아보며 통곡하고...
평신도는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어 행복해서 울고...
새신자는 하늘 가는 길이 보여 기뻐 울고...
사흘동안 눈이 툭툭 불도록 울었다.

- 일 시: 2016년 5월 17일(화) 오후6시 ~20일(금) 오후5시 / 3박 4일
- 장 소: 강원도 평창 휘닉스 파크 (www.phoenixpark.co.kr)
- 대 상: 목사, 사모, 직분자, 평신도, 신학생
- 참가비: 15만원 / 국민은행 097-21-0551-900 (예금주: 김수진)
- ※ 담임목회자, 사모 참가비 무료 / 부교역자, 신학생은 50%
- 접수 및 문의: 02-900-2200
- 인터넷접수: www.zoemission.org
- 교통편: 본 선교회 제공 관광버스 이용 (탑승 장소의 시간은 안내장에 나갑니다.)



· 요한계시록 2장 강해(18)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감추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이요 말씀이다!

〈지나호 이어서...〉

“감추인 만나”- 만나는 출 16:15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한 마디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라고 했고, 요 6:31-35에 감추어져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요, 너희 조상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으니 그것은 참된 빵이고 살아 있는 빵이라.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니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그와 같은 생명의 빵인데 아직 감춰져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과거로 교회같이 사탄의 자리에 있을 때 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로써 견딜 수 없는 고문과 또 죽임 당하는 사형집행 현장에서 지금까지 감춰져서 알지 못했던 만나, 즉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별적으로 그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출 16:15과 요 6:31-35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감추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고문 받을 그때에 이 감추인 만나를 받을 것이 기정 사실이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에서 이러한 일들을 볼 21:12 이하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세자들 앞에서, 너희를 죽이는 사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연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구별과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고문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짐승표를 받겠다고 헛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인 만나로써 결코 헛말도 우리의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주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정절을 지키는 말만 하게 하시는 역사가 감추인 만나입니다.

“흰 돌” -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순교의 현장에

서 죽임 당하는 자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현장 너머에 무엇이 있나요? 순교한 자들의 내세가 있습니다. 다시 오는 세상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시 오는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한 자들 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다가 나중에 백보좌 심판 때 부활하여 하늘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환란 날 순교한 자들은 주 재림 시에 먼저 부활하여 특별하게 다시 이 세상인 천년왕국에서 부활제로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주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 받는 이름이 곧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얼마나 자신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될 것인가를 확신하며 사형집행 직전의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18절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듯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두아티라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철장권세입니다. 환란 때 이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아티라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장권세를 정확히 모르는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겠으나 이렇게 철장권세를 드러내신 것은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두아티라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주의 눈이 불꽃같고 발은 빛나는 듯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깨달으면 두아티라 교회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아티라 교회의 단계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불꽃같다”는 것은 23절의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하신 말씀과 연관됩니다. 주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두아티라 교회의 속과 마음을 살피서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전부 아십니다. 또 두아티라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남은 귀한 자들을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눈이 불꽃같은 주님이 그들 안에,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십니다.

“주님의 발이 빛나는 듯 같다”는 것은 주님의 발로 일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27절에 주님이 끝까지 아버지의 일을 지키신 것으로 인해 아버지께로부터 철장권세를 받으신 것같이, 26절의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14:12).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발로 끝까지 잘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철장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 안에서 인도 받고 살림을 받으며 또 저울에 달리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19절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 제자리 신앙이 아니라 계속 발전된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은 자꾸 더 좋아져야 합니다. 더 밝아지고, 더 신령해지고, 주님과 더욱 밀착되어지고 좋은 측면으로 계속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처음 행위도 아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처음 행위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영적생명으로 육신적인 것을 이기고 사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 믿음에 맞지 않는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인터넷방송 www.jtntv.kr에서 장한국 목사의 방송된 강의를 있습니다.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15)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나호에 이어서...〉

“심자가는 의(의)를 위한 수난이며, 부활은 악(죽음)의 세력에 대한 극복이다.”이 예수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마 16:16)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이 명령을 따라서 교회와 신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흥운동의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

그와 아울러 우리는 회개되어진 인격으로 신앙운동 혹은 영성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개인의 회심과 구원, 성화에 대한 복음이 강조되어 기성신자들에게는 계속적인 자기 각성을 하여 예수의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신앙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원동력은 변화의 능력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경건 훈련을 위하여
영성훈련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경건 훈련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면서 경건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후 6:11-12)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7-8)

이 같은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은 영성훈련의 한 방법이며, 다음은 경건생활을 위한 방법이다. ①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② 가정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③ 열심히 전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어야 한다. ④ 기존 신자들이 자기 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교



홍향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장

회를 위해 사용하며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학생회 지도교사, 속장(구역장) 등, 기꺼이 교회의 선하고 충성스런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예수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정 안에서서의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사랑과 이해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가르치며, 이웃과 직장에서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남에게 호감을 주고 일하는 업무 면에서도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바른 경제생활을 하며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고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나님께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고,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성의껏 참여하도록 하며, 사치생활을 금하고, 과음과 도박을 하지 않으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절제와 절약, 검소한 생활을 하고, 성실과 근면,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하여야 한다.

3) 불신자를 위한 신앙운동
예수님께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고 하였고,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이러한 명령을 따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불신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 2:38)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의 사실을 성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운동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을 위한 영성훈련을 전개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그의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는 것에 두었다. 바울은 어디서나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모으며, 복음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그 복음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전했다. 즉 그는 효과적인 복음전도의 내용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바울은 복음전도를 위해 불신자들에게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19-23)

이처럼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호응하는 데에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여서 복음을 가장 효과 있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순교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전도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에 힘입어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였고 주를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4) 기존 신자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바울 사도는 그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계속해서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교회나 기존 신자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편지로써 그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였다.“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딤후 3:16-17)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훈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진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직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발기도회 오후 9:00
심야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업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매월 밤 10시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임신형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6

성막과 영성훈련, 성막구조 개관, 단계별 성막 구조

〈지난호에 이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곳으로’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끌어내셨다. 그것은 정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곳에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리기를 보내셨고, 물이 없어 한탄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았다.

‘주께서 사십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민 33:1-4).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비로소 그들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에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이유에 대하여 ‘패역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시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순종하고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케 하리라 함’이라고 하였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죽음(지옥)에서 건져내 구원에 이르게 할 원하신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허상인 물질만능과 부귀영华的 망상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다. 광야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사람의 첫 신희탄임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다.

황량한 사막과 하나님의 계획

황량한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왜 곧바로 가나안을 향하게 하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12부족이 진치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 본래 타락한 인간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 좋은 일보다는 악한 일하기를 좋아한다. 건망증이 심하여 하나님의 말씀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을 잘 잊어버리고 들 나귀같이 자유분방하여 자기 멋대로 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되찾아 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은 달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아시므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지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끌어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잔꾀를 잘 부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황량한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으며, 성막(하나님)을 중심으로 협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광야에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분의 존재를 세상이 알게 하시고, 사람이 떠도모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1. 성막과 영성훈련

영성훈련의 기본적 입문과정은 성막공부이다. 이 과정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천국 성전의 모형이며 인류 구원의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였다.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

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를 훈련하게 하셨다.

그 성막이 오늘날에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는데, 교회가 ‘제사’를 내버리면서 성막의 의미와 그 역할까지도 망각하게 되어, 성도들을 위한 구원사역에 문제가 야기되었다. 마태복음 7장 21-23절에서,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고 하자,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다. 성막의 구원 과정 없이,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2. 성막구조 개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크기는 장이 100규빗(50m), 폭이 50규빗(25m)으로, 60개의 기둥이 돛 바침 위에 세워졌고,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5규빗(2.5m) 높이의 흰 세마포로 둘러쳐져 있었다. 그리고 장방형 성막의 동쪽에 휘장을 친 문이 하나 있었는데, 성막 외부에서는 오직 하나인 이 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었다. 문의 넓이는 10m 정도로, 천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은 화려한 휘장이 둘러쳐져 있고, 그 휘장을 양쪽으로 열고, 드나들 수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흙으로 아궁이처럼 만든 곳 위에 돛쇠로 그물처럼 만든 가로 세로 5규빗×5규빗(2.5m×2.5m), 높이 3규빗(1.5m)짜리 변제단이 놓여 있었고, 약간 떨어진 곳에 역시 돛쇠로 만든, 물을 담아 놓는 물두멍이 놓여 있었다. 성경에는 그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나 2규빗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안으로 더 들어가면 장막성전이 있었는데 그 크기는 장이 30규빗(15m), 폭이 10규빗(5m), 높이가 10규빗(5m)이며, 수달 가죽으로 만든 지붕이 씌워져 있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동편을 향하여 난 문이 단 하나 있었다. 그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는데 성소는 장이 20규빗(10m), 폭이 10규빗(5m)이고, 지성소는 10규빗(5m) 장방형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에는 역시 휘장이 쳐져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2)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서 문 / 하나님으로 부터 國家와 民族의 時代의 師命子로서 부름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先知者들의 영적인 삶과 사역이 필요한 시대임을 직시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인 아주 작은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며 서로의 사명을 나누고 의지하는 이 모임에 미력하나마 주님이 필자에게 주신 改革의 한부분인 教育을 위하여 研究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이 民族의 未來와 後孫들이 받고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고 저 합니다.

教育은 그 民族과 國家의 未來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歷史 속에서 경험하고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試行錯誤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못된 교육은 잘못된 인간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政治, 經濟, 文化, 教育, 家丁, 道德性, 人格, 價值觀, 信仰, 모든 분야의 문제는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사려 됩니다. 家庭教育, 學校教育, 教會教育, 社會教育, 國家의 教育, 民族의 教育, 世界的 教育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다자인하신교회 담임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改革모임

이 바로 세워져야합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은 과연 글로벌시대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가를 묻고 아니라면 속히 모든 교육이 변화되고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시대를 변화 시키고 개혁하며 歷史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셨습니다. 이 참담한 이 시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서로를 다투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보는 방법은 과거와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바로 볼 때 회개와 대책이 나오고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민족의 병든 현실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들의 기쁨부음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하면서 글의 문을 엽니다.

1. 한국 근대교육 성립과 사회적 배경

1) 19세기말 근대사회로의 전환
19세기말 우리나라는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의 근대문화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동양문화권의 범주에서 세계문화의 범주로 변화되는 전환기이다.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의 수용은 1876년 일본과의 병자수호조약으로 외국에 문화를 개방하면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접촉은 1880년 전후로 급속하게 이루어져 일본, 미국, 독일, 러시아, 영국 등의 제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2) 근대사회의 현실
조선은 근대사회를 지향했으나 정치적 경제적 사정적으로 모순된 정체된 사회였다. 정치적으로는 외척세력의 집권으로 비합법적이며 명분이 없는 정치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기강이 문란하게 되었다. 외척세력은 관리임용의 부정과 민중에 대한 착취로 인하여 민중과 괴리된 정권체제였다.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은 정치세력을 장악하여 일대 개혁을 시행하였다.

리의 큰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익뤼스(익뤼스 #962)로 요나를 삼킨 익뤼스로, 결국 요나를 회개시켜 올바른 길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한 것과 똑같이 153계명(모세 5경의 153장의 계명)이 제자들의 잘못된 길을 깨우치고 회개시켜 올바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신 것이 곧 익뤼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육지에서는 주님이 숲불에 생선을 구워 놓고 빵도 있었습니다. 이를 주님이 주시어 제자들이 조반으로 먹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불로 다시 핀 숲불처럼 주 믿는 제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녹이시고 제거시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자들 되게 하심이 구운 생선과 같습니다. 또 빵은 생명의 빵으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인 조반부터 시작, 은혜, 영광의 복음으로 증거하며 끝나게 됨이 제자들의 참 양식인 것임을 제시했습니다. 할렐루야.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본사 부이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웅 목사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담임 오중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063)244-2374 010-9696-6377

주일 예배 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기독교대한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도회 오후 9시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우순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641-0687 H.P 010-7405-9191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현 목사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원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조예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조예/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촌(직업훈련소)

■ 靑松 건강칼럼(487)

봄철 불청객 황사(黃砂)와 미세(微細)먼지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올해도 봄철 불청객(不請客)으로 불리는 중국발(發) 황사(黃砂)와 미세(微細) 먼지가 우리나라로 불어 닥치고 있다. 여름엔 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초목(草木)들이 있고, 겨울엔 추운 날씨로 땅이 얼기 때문에 봄철만큼 황사가 생기지 않는다. 봄철에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봄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사막에서 지표면의 공기가 뜨거워지면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 흩먼지가 떠오르기 쉽다. 또한 중국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이다.

황사를 국제적으로는 아시아먼지(Asian Dust)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흙가루가 비처럼 내린다는 의미로 토우(土雨), 우토(雨土) 등으로 불렀다. 황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우토’라는 표현이 나오며, 고려사(高麗史)에는 황사우(黃砂雨), 사우(砂雨) 등의 표현으로,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황사 기록이 있다. 중국의 황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150년의 우토(雨土)이며, 일본은 서기 807년 황우(黃雨)라는 기록이 최초다. 우리나라에서 황사라는 용어는 195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인 에어로졸(aerosol)이다. 입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머리카락은 50-7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 모래는 90㎛, 미세먼지 10㎛ 이하, 초미세(超微細)먼지 2.5㎛ 이하이다. 에어로졸은 태양빛을 산란시키고, 공기를 뿌렇게 보이도록 한다. 따라서 공기 중에 황사와 미세 먼지가 많아지면 시야(視野)가 뿌렇게 변한다.

도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세 먼지는 일년 내내 만들어지는 오염 물질이지만 특히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중국 대도시 지역의 미세 먼지도 황사와 함께 날아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東)아시아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횡수와 강도는 1990년대 이래 빠르게 증가하여, 197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는 무려 4배 이상 급증하였다. 초미세 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굴뚝의 연기, 요리를 할 때, 나무를 태울 때 등 다양한 기체들이 공기 중에 배출되면서 생긴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는 일년 내내 생기지만, 특히 겨울철에 농도가 높다. 이는 추운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여 가스는 많이 배출되지만, 공기는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3월 21일) 서울의 하루 평균 미세 먼지 농도는 1㎡당 87㎍, 경기 지역은 92㎍을 기록하여 환경부 권고 기준으로 ‘나쁨’(㎡당 81-15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50㎍)을 훨씬 넘는 수치이다. 당일 수도권 상공에 바람이 없고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유입된 미세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도권을 뿔뿔고 있었다.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에 장시간 외출하면 호흡기, 눈, 피부 등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농도(㎍/㎡)가 0-30이면 ‘좋음’, 31-80은 ‘보통’, 81-150이면 ‘나쁨’, 그리고 ‘매우 나쁨’은 151이상이다.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날(‘나쁨’ 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날씨 예보(미세먼지 예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황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2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원래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강한 황사가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피해가 5조원, 건강피해가 10조원으로 총 1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황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기 청정기(淸淨機)와 필터 기능을 강화한 황사 마스크가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중국발 황사 피해와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된 2010년 이후 빠르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7만대 수준이던 판매 시장은 2014년 50만대, 지난해 87만대, 올해는 1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요즘 판매되는 신형 청소기에는 미세 먼지를 비롯하여 곰팡이, 꽃가루 등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다.

동아시아의 황사현상(Asian dust phenomenon)은 주로 중국과 몽골의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커얼친 사막, 내몽골 고원, 황토고원 등에서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발생한 황사위에 저기압이 지나가면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3천-5천m의 높은 상공으로 올라간 뒤 초속 30m 정도의 편서풍(偏西風)을 타고 이동한다. 발원지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일 정도이다.

입자가 크고 무거운 황사는 공기 중으로 올라가도 금방 땅에 떨어지며, 황사 바람이 서해를 건너올 때 먼지 입자가 바다에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봄철에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부분 입자 크기가 10㎛보다 작은 것이다. 사막지대의 황사는 규소(珪素)가, 황토지대의 황사는 알루미늄이 주성분이며, 철 마그네슘 칼륨 칼슘 나트륨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황사를 비롯한 미세 먼지는 우리가 호흡할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肺)까지 들어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폐 속 깊이 침투하여 폐포(肺胞)에 흡착하여 폐포를 손상한다. 초미세 먼지가 혈액을 타고 뇌까지 침투하면 자율신경계 이상, 뇌졸중(腦卒中)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혈관으로 들어가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킨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눈 점막을 자극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結膜炎), 코 점막을 자극하면 알레르기성 비염(鼻炎)이 악화된다.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며, 상기도 점막 자극 증상이 나타난다. 폐에 염증이 생겨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 임신부가 미세 먼지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태아의 성장장애, 저체중아 출산, 조산 위험 등이 증가한다.

중금속, 바이러스, 미생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식품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세입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과 이물질이 식품에 오염될 경우 식중독과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로 인해 건강장애나 식중독 사고가 확산될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해당하는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또한 위기수준에 따라 대응조치를 시행하며, 올바른 정보 및 국민대처 요령 등을 홍보하여 식품사고에 대응한다.

식품 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조리 시 주의사항은 창문을 닫아 외부 먼지를 막으며,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도구는 사용 전 다시 한번 세척을 하며, 조리된 음식은 밀봉 보관하도록 한다. 식품 섭취 시 주의 사항은 포장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는 2분간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고, 필요에 따라 채소용 또는 과일용 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하도록 한다.

몸 안에 들어온 유해물질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지하수(地下水)는 황사로 인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마시지 않도록 한다. 노상이나 야외에서 조리한 음식은 황사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어린이들이 사먹지 않도록 지도한다.

식품 보관 시 주의 사항은 배추, 무 등 김치 재료는 외부와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도록 한다. 포장되지 않은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은 플라스틱 봉투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반찬 등 남은 음식물은 잘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메주, 건(乾)고추, 시래기, 무말랭이 등 자연건조식품은 황사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을 하거나 수거하여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및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무허가 제품들은 분진 포집비율이 보건용(保健用)마스크 허가기준 80%에 크게 미달되며, 일부 제품은 28%에 불과했다. 황사마스크(보건용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마스크 제조업체와 수

입업체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라고 판매하면 약사법(藥師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용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제품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 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 옆에 표시된 숫자는 미세 입자의 차단효율(%)을 나타낸다. 입자 크기 0.6㎛ 미만의 먼지를 80% 이상 차단해야 식약처의 허가 기준에 통과된다. KF80, KF94, KF99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황사마스크는 KF80이다.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하려면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사용해야한다.

KF 수치가 높을수록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성능은 뛰어나지만 사람에게 따라서는 호흡이 불편할 수도 있다. 즉, 성능이 너무 뛰어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이 약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므로 황사마스크 착용 후 숨 쉬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임신부, 노약자도 황사마스크 착용 후 호흡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3월 24일 개최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시설 등 어르신 보호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내용을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알려 실의활동 자제 등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 12월에 학교,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은 대개 원장이 담당자다. 미세먼지 관리 담당자가 법적인 의무 등은 없지만,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응 지침이 신속하게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정조건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低減) 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3대 주요 배출원(排出源)인 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도로 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3.5톤 이상 대형차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시행한다.

‘황사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즉, 황사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만약 외출할 때는 노출되는 피부를 줄이기 위하여 긴소매 옷을 입으며 보호안경, 황사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외출 후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옷의 먼지를 잘 털며,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눈과 코의 먼지는 식염수로 씻어내도록 한다.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황사 주의보가 해제되면 실내공기를 환기하도록 한다.

“3박자 건강”-자유시간과 건강!(59)

“업무, 자유시간 적절한 안배는 최상의 건강비결”



황성주 박사

노동생리학의 대가인 독일의 레이만 박사는 직장인의 1일 생활을 크게 나누어 다음 4가지의 시간으로 분류했다. 이는 구속시간(근무시간), 반구속시간(통근, 가사, 식사, 운동, 목욕 등), 자유시간(오락, 휴식, 취미 생활 등), 수면시간이다. 그런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시간과 수면시간을 합해 12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속시간과 반구속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만성피로 등 반건강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질병발생을 야기시킨다. 구속시간과 반구속시간은 많은 적든 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간으로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신이 지치게 된다.

반면에 자유시간과 수면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루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자유시간과 수면시간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갖는 것이 원칙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라 단순하지 않다. 결국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내용과 질이 문제다. 예를 들면 목욕을 꼭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할 때는 반구속시간이 되지만 목욕을 즐기고 마음의 안식을 갖는 시간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자유시간이 된다.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식사시간이나 술자석에 동석할 경우에도 직장상사나 고객과 부담스러운 자리를 마련했을 때 오히려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반구속시간이 아닌 구속시간으로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술자석이라도 동료들과의 즐거운 한 판이 될 경우 반구속시간이 자유시간으로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자리일수록 모임의 주관자는 모든 참석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능력껏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2차, 3차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 상용하고 있는 술, 담배, 도박 등은 스트레스 해소는 커녕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기소침하거나 무력감을 느낄 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용하는 담배나 술은 순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결국 몸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해소는 억지로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이탈할 때 이는 결국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불건강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 헨스 박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화목한 가정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시켜 준다고 한다. 가정이야말로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황성주 박사“3박자 건강”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개신교총연합회(한신연)가맹교단

2016학년도(후기) 합동신학 · 학술원 원생모집(주 · 야)

편목 및 총회 가입안내
(남 · 여)

모집학과 및 자격

1. 목사 예비 교육과정(대학부/주간 · 야간)

학 과	학제	지원자격
신학과	4년	목회와 선교사명자로 세례를 받고 신학연구 할본(교졸이상)
목회학과	4년	시명자로 세례를 받고 복음전파에 사명있는 자로 학력 연령불문

2. 목사연장 교육과정(대학원부)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목회신학연구원 (M · DM)	3년	대학 및 신학교 졸업자로서 목회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는 자 (신약신학 · 구약신학 · 조직신학 · 역사신학 · 선교학 · 신전신학)
신학연구원 (THM)	2년	일반대학과 신학대학 졸업자 B.D나 M.D학위 소지자

3. 학술원부

학 과	학제	대 상 자 격
신학 · 목회전공	3년	신학연구원대학원졸업자로 목회 3년 이상 경력자로서 목사 · 강도사 · 전도사

4. 통신학부

신학에 관심있는 분으로서 시간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신학공부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으로 졸업 후 신학과에 편입하여 연장공부 후 목사 및 전도사로 시무할 수 있습니다.

학 과	학제	대 상 자 격
신 학 과	4년	교졸이상으로 목회에 뜻이 있고 확실한 사명이 있는 자
목회학과	4년	학력, 연령 불문으로 확실한 소명이 있는 자

본교의 특징



원장 지 용 은 목사

- ▶ 본교는 한신연 가맹 교단으로 졸업 후 본 교단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안수 받음
- ▶ 각종 장학제도 있음.
- ▶ 선교사 지망자는 100% 해외선교사로 파송함
- ▶ 본교는 보수적 교단이면서 참신한 목회자들로 구성된 교단으로 교권주의를 배격하며 서서로 돌아가자는 이념으로 설립된 교단임.
- ▶ 본교 졸업 후 총회, 기관, 신학교, 해외 등 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음.
- ▶ 여 목사 안수제도 있음.
- ▶ 우수한 학생을 본교 교수로 채용함.
- ▶ 졸업 후 해외 유명신학대학에 편입할 수 있음.

※ 군소신학졸업자로 정규학사 학위 없는 분들은 학점은행 연계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② 졸업증명서..... 각 1부
- ③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④ 자필이력서 1부
- ⑤ 반명함판사진 3매

전형방법

- 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합격자 결정
- ② 원서교부 : 수시모집
- ③ 개강일 : 수시입학
- ④ 방학없음(1년4학기.조기졸업가능)



학생처장 김만호 목사

주요 교수진

- ① 지용은 교수(상지대, 강남대, 서울신대원 (전)호원대 교수)
- ② 유성상 교수(안양대학교, 동대학원, 복원교회 원로목사)
- ③ 한순자 교수(서울대, 숙명여대원, 홍신원 (전) 삼선종교장)
- ④ 김국경 교수(고려대학원, 연세대학원, 합동선목 총회장)
- ⑤ 전병현 교수(성공관대, 동대학원, 강남대교수)
- ⑥ 최원수 교수(한남대학원 (전)서구기독교연합회 회장)
- ⑦ 한석규 교수(국민대, 웨스트민스터신대원, 학점은행 교수)
- ⑧ 이흥선 교수(충신대신학대학원, 충신대사회교육대학 교수)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합동신학.연구원.학술원
(교역자 · 선교사양성기관)

명예원장: 유성상 박사 원 장: 지용운 박사 학생처장: 김만호 목사
인천시 서구 석남로 107(2층)
TEL:032)581-9098 FAX)578-3252 (H.P) 010-9062-8098

합동신학 · 연구원 · 학술원

동암역에서 (버스) 7, 70, 700, 903, 103번 이용 거북시장 하차 석남 소방서 맞은 편 인천지하철 2호선 여성화관역, 2번 출구 150미터 (2층: 합동신학, 성은제일교회)

후원 : 개신교연합방송(kpntv.kr)



인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조찬기도회 열어 300만 인천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지도자들로...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제26회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회장 장희열 목사)는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13명을 4월 16일(토) 오전 7시 인천 서구 가좌동 하버파크호텔에 초청 예배를 드린 후 축하연을 베풀었다.

인천시조찬기도회(회장 장희열 목사) 주최로 열린 조찬기도회는 공동회장 조춘혁 목사(남인천교회)의 진행으로 회장 장희열 목사(순복음부평교회)의 환영사, 안주배 장로(인기총장로회총회장)가 기도, 장은화 장로(여성분과위원장)가 성경봉독(딤후4:15-16)하고, 인천장로성가단(단장 최동수 장로, 지휘 황의구 장로)의 찬양에 이어 인기총총회장 전명구 감독은「이제는 보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신덕수 목사(분회 공동회장)의 사회로 제2부 당선자 축하가 시작되고 유정복 시장(인천광역시)의 인사말씀과 이종복 감독(분회 고문), 하귀호 목사(분회 공동회장), 손신철 목사(분회 공동회장)가 격려사를, 노경수 의원(시의회), 임형재 목사(분회공동회장), 이건영 목사(분회 공동회장)들이 축하했다.

특별기도에 신용대 목사(분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① 대통령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김태일 목사(인기총 부회장), ② 20대 국회의원당선자를 위하여 이동원 목사(분회 부회장), ③ 인천광역시장과 각 기관과 인천경제를 위하여 조강수 목사(분회 부회장/영광교회), ④ 인천성서화와 이슬람, 동성애, 이단적결을 위하여 김길수 목사(인기총 사무총장)가 나섰다.

아울러 공동회장 신덕수 목사는 국회 의원 당선자 계양구갑 유동수, 계양구를

송영길, 남구갑 홍일표, 남구를 윤상현, 남동구갑 박남춘, 남동구를 윤관석, 부평구갑 정유섭, 부평구를 홍영표, 서구갑 이학재, 서구를 신동근, 연수구갑 박찬대, 연수구를 민경욱,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안상수 등 13명의 국회의원을 소개하고, 꽃다발 증정과 케익커팅을 가졌으며, 이어 차준철 목사(분회 사무총장)의 내빈 소개 및 광고를, 분회 명예회장 서명섭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풍구 장로(분회 운영위원)의 조찬기도가 있던 후 덕담을 나누며 아침식사를 끝으로 조찬기도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분회 부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는 인천광역시장과 각 기관과 인천경제발전을 위한 기도에서 “행복의 근원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귀한 시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금덩어리 품에 앉았을 때에 무릎으로 기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결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시장을 통하여



다니엘처럼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천의 엄청난 경제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시장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시장, 예배드리는 시장이 되어서 300만 우리 인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열 세분의 귀한 지도자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어린 젖먹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행복한 인천, 대한민국의 인천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장 대한노회 제16회 정기노회 및 임직식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충북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 소재 새에루살렘교회(김정미 목사)에서 제16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1부 예배에서 임직식을 갖고, 2부 성찬식, 3부 회무처리,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되고, 12일 오전 11시 청송교도소를 위문, 감사예배를 드리는 등 수용자들에게 새 희망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서기 박민규 목사의 진행으로 1부예배가 시작되어 김은남 목사가 기도를, 최순란 목사가 성경봉독(딤후1:6-9)하고, 유순옥 목사가 특송을,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안수 받은 종들의 할 일”이란 주



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서기 박민규 목사가 임직자를 호명하고,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서약하고 전상렬씨를 목사로 임직했다. 따라서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가 축사권면을, 전상렬 신임목사가 인사와 축도로 임직식을 마쳤다. 이날 안수위원은 노회장 장한국 목사, 이창우 목사, 박종연 목사, 박민규 목사, 김정미 목사 등이다. 또한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3부 회무처리가 있던 후 김정미 목사의 기도와 장한국 노회장의 축도로 폐회되었다.

한편 12일 오후 1시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노회임원들과 함께 청송 교도소를 찾아 위문하고, 조예교정선교회(유운주 목사)의 주관으로 자매예배가 시작되어 장한국 목사는 고전 15:20~24절을 본문으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또한 청송교도소 선교집회가 오후 3시 대강당에서 400여명의 수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회 주관으로 드러진 예배에 장한국 목사는 뱀전 1:3~7절을 중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청송교도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용자들을 위로했다.

필리핀 대선과 영혼전도

성난 민심 등에 얽고 정의의 칼, 두테르테 대선후보 압도적 승리

초미의 관심 속에 5월 9일 6년 단임제인 제16대 대통령 선출과 6년제 상원의원, 주요 요직을 뽑는 필리핀 대선이 치러졌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을 찾았다. 앙겔레스시판단 바랑가이 파분지역 투표장은 피네다 구테레즈 초등학교(Pineda Gutierrez Elementary School)에서 이루어 졌다.

대통령 1명, 상원의원 12명, 시장과 부시장 각1명, 시의원 10명을 선출하게 되어 투표자들은 후보자들 중에서 상기 인원수 만큼 골라서 기표를 하게 되어 있어 선거투표장은 마치 고시장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 후보는 1번 비나이(Binay, Jojmar) 2번 디펜소 산티아고(Depensor Santiago, Miriam), 3번 두테르테(Duterte, Rodrigo) 4번 포(Poe, Grace), 5번 로하스(Roxas, Mar) 6번 세네레스(Seneres, Roy) 등 6명이 경합을 벌였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160:강력한 원칙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공권력을 풀어 마약왕과 갱배들을 6개월 안에 전부 처형하겠다고#160:공약을 내세우며 22년간 Davao 시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두테르테(70, Duterte)가 2위 그룹과 600만 표 이상으로 앞서 90퍼센트 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사

실상 당선이 확정되었다. 아키노 대통령이 지명한 집권 자유당 소속 전 내무장관 출신 로하스(58, Rohas)와 무소속 여성 상원의원 포(47, Poe)가 서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쫓았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마카티 시장 출신 비나이(73, Binay) 부통령은 4위에 머물렀다.

COMELEC-GMA Mirror Server GMA방송국 자료에 의하면 10일 밤 10시 45분 현재 55,735,757표 중 43,024,095표가 개표되어 94.32퍼센트의 개표율을 보였다. 1위 두테르테 15,709,136표, 2위 로하스 9,541,677표, 3위 포 8,815,904표, 4위 비나이 5,232,855표, 5위 디펜소1,401,694표, 6위 세네레스 24,784표 순이다. 부통령은 1위 로브레토(Robredo, Leni) 13,808,534표, 2위 마르코스(Marcos, Bongbong) 13,576,236표, 상원의원 1위 드릴론(Drilon, Frank) 17,900,178표, 2위 빌리온 누에바(Villanueva, Joel) 17,853,545표, 3위 소토(Sotto, Vicente) 16,607,414표 순이다.

극도로 불안한 치안과 각종 부정부패 및 극심한 빈부격차로 돌과구를 원하는 민심들이 과격한 밀어붙이기와 인권탄압으로 자칫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 후보를 600만이 넘는 압

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거의 확정지었다.

투표장에서 Pineda Gutierrez 초등학교 Zen Quiambao 교장 선생을 만나 학교증축과 식당건축 및 학교 건물 페인트 작업에 따른 공사재료 후원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분다니엘교회에서 초등학교에 물품기증 및 교육과 복음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에 서로 기도해 보자고 하였다.

투표장 봉사요원들과 만나 파분다니엘교회를 소개하고 개인 전도차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교문 밖에서도 파분동네 사람들을 만나 간식을 사취 가면서 전도를 하였다.

이제는 파분다니엘교회가 설립과 입당예배를 마치고 계속 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매주일 행사와 교육이 이어지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부들도 전도가 되어 교인이 되어가기에 지역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교회가 차지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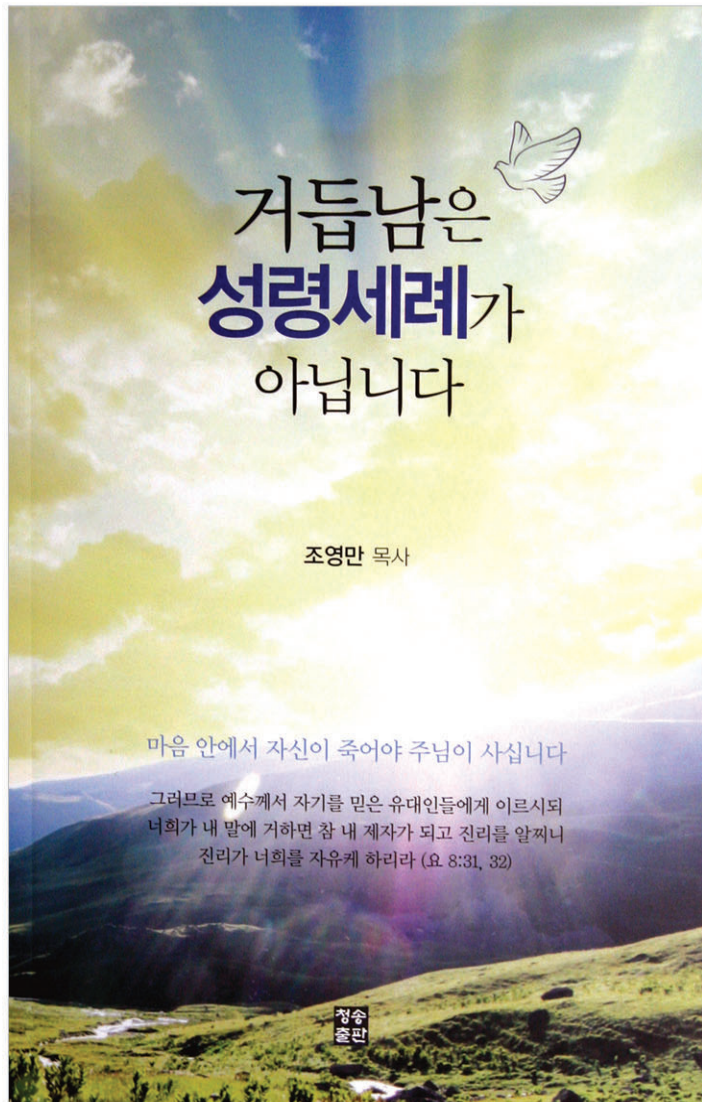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필리핀의 미래가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펼쳐질 기대한다.

필리핀 앙겔레스에서 지저스타임즈 이경철 기자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 배(거듭남)를 늦은 비(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홍해를 건너는 것(거듭남)을 요단을 건너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거듭남)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어린 아이(거듭남)를 장성한 자(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거듭남)을 신령한 자들(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생의 씻음(거듭남)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거듭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은혜(거듭남)를 은혜위에 은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거듭남)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거듭남)을 너희 속에 계시겠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거듭남)을 새 마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옷(거듭남)을 의의 겹옷(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아브라함이 85세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거듭남)을 99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거듭남)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성령세례)과 같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자 조영만

-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 총신대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Div/M.A)
-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 사예장한동부수연합선교회 이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협동부수교단 총무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 CTS 종인방송 운영이사
- 현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책 주문 방법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 010-5355-2584
-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 예금주 : 시온교회
- 신한은행 : 110-029-475990
- 책 가격 : 15,000원
- 다음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 http://cafe.daum.net/choym.com



2016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하나님 한 분으로 성경: 시편 25편 1절 찬송가 559장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나의 영혼이 여호와 당신만을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우상이나 인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도울 사람은 없어도 도우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루도 당당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삽시다.

제목: 그 모든 고통도 성경: 시편 25편 2절 찬송가 301장

본절의 부끄러움은 원수들에게 굴복 당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치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여호와를 의지했으며 또한 지금 확신 가운데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전혀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않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치까지도 감당하사 영원한 승리를 보장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목: 성숙에 이르는 기도 성경: 시편 25편 3절 찬송가 338장

본절은 기도에서 확신으로 넘어오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심에 있어서는 불변하신 속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도 할 때 내 이야기만 내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도제목은 앞당겨 달라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성숙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진리로 살 때에 성경: 시편 25편 4-5절 찬송가 391장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공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그에게 입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원불변하신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고 도움임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크나큰 선물이라는 날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살길 축복합니다.

제목: 그분의 성품 성경: 시편 25편 6절 찬송가 407장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공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행위보다는 인정받지 못할 죄악을 더 많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었습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제목: 기억 속에서 성경: 시편 25편 7절 찬송가 419장

여기서 사용된 두 동사는 다윗의 이중적인 기도를 보여 줍니다. 즉 소극적으로 자신의 800년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실 것을 간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언약적 사랑)으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과거의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그 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제목: 오직 주만이 성경: 시편 25편 8절 찬송가 149장

1-7절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다윗은 본절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보다 철저한 신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아울러 찬송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와 같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다윗 자신의 죄악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함이 마땅하고 때론 우린 어떠한 과업의 성취와 결과를 내것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모든 삶에 주님만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제목: 믿는 자의 분이 되기 위하여 성경: 시편 25편 9절

여기서 온유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가난한 자, 곤란 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나 7절과 연결시켜 볼 때 여기서는 자기 죄를 고백

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교육시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천국에서의 삶 뿐만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져 그분의 성품이 내 모습에 인이 박혀 믿는 자의 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진정한 변화된 삶이란? 성경: 시편 25편 10절 찬송가 200장

여호와와 모든 길은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다(4절). 따라서 이 길은 8 절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그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변화 된 자의 삶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제목: 자신의 죄악을 회개 할 때 성경: 시편 25편 11절 찬송가 365장

다시금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또 다시 회개하게 된 동기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언약의 원리를 기억했을 때 그는 지난날의 중대한 죄악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날과 현재의 죄가 기억난다면 회개 하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나지 않는 죄마저도 하나님께 용서 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목: 경외하는 자는 성경: 시편 25편 12절 찬송가 474장

본 구절은 지혜 있는 삶 곧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혜의 근원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근원을 소유한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져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목: 어디에 있는지 성경: 시편 25편 13절 찬송가 572장

앞 구절이 내적인 복을 의지한다면 이 구절은 외적인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구절은 약속의 땅에서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은 영적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먹고 잘사는 것도 사는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로써 그 삶에 합당한 자로써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성경: 시편 25편 14절 찬송가 402장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곧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매순간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내 눈이 향하는 곳은 성경: 시편 25편 15절 찬송가 297장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를 충

분히 증거했기 때문에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윗의 끈기 있는 기도와 그의 인내하는 믿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영적 눈이 어둡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쳐 외롭고 쓸쓸 할 때 성경: 시편 25편 16절 찬송가 94장

본절의 이 표현은 죄로 인한 다윗과 하나님의 교제 단절에 대한 것입니다. 죄로 고민하는 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러한 처지에서 구할 수 없음을 알기에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홀로 외로워 아파 할 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 할 것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맡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유일하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시면 우리보다 더 고단하게 힘 다해 섬기며 사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우리처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육체에 싸여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우리 주님은 행로에 너무나 곤하여 우물가에 주저앉으셔야 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시기 위하여 돼지의 사료로 쓰이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라도 구하여 먹고, 심지어는 보혈을 흘리실 때는 원수들에게 목마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닌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 있는 우리 주님의 기도생활을 주목하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마 이 기도 속에는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까지 드러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 어찌 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것처럼 연약하신 육체로 어떻게 이처럼 견고한 기도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었나요?" 그것은 주님의 생활이 여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육체가 우리보다 강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이 우리의 그것보다 평화스

러웠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불붙는 열망이 예수님의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 일을 위한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환경의 위협



과 육체의 곤고함을 딛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분의 간구는 원수들에게 체포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고, 그 분의 중보기도는 보혈로 십자가를 적시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둘러싼 것과 같은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에 허덕이며 기도생활에 실패하는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18에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받은 영광을 따라 함께 받은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 2:18) 주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진우 목사 2015년-2016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5년 1월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4 안양광운교회(이동환 목사)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2-14 온양중기교회(백현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길신교회(김동한 목사)
25-28 담심리침례교회(최종호 목사)
3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5년 2월
2-5 갈멜산기도원(이영금 원장)
9-11 원전교회(최성근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19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23-25 대구중앙교회(양원정 목사)

2015년 3월
축복심방의 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30-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6-10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4 정기노회
19-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27-29 능곡명성교회(송현철 목사)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불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영 원장)

2015년 6월
1-3 전진교회(송일목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 오산리공식기도원(함덕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영선 원장)
13-16 김해배달수양관(이순자 원장)
20-23 반석기도원(김영숙 원장)
27-30 에덴금식수양관(양희국 원장)

2015년 8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17-20 갈멜산기도원(이영금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31-1 언론사 연수원(대표회장 조광수 목사)
1 오산리침례교회(최정숙 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영 원장)
7-11 온누리복음회(임기호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지대현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정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환)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9 기쁨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산수양관(방만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3-25 영산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안리선교지방문
7-9 삼복교회(고정민 목사)
14-16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최낙현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8-30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4-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11-13 한울교회(신현덕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1 에덴교회(양희국 목사)
24-27 성일교회(이판석 목사)

2016년 2월
1-4 갈멜산기도원(이영금 원장)
8-11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7 대구열린문교회(류정호 목사)
22-26 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3월
불철축복대심방의 달

2016년 4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7 안산세광교회(윤주후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25-27 양문교회(노희석 목사)

2016년 5월
2-5 영광교회(조광수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1 한우리교회(윤종술 목사)
15-18 예복교회 불철부흥성회
23-26 초대중앙교회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6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8 사량교회(최용석 목사)
13-17 선교지사역자대회
27-30 사량제일교회(오만곤 목사)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7-23 심야기도대성회(예복교회)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희국 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8월



봄을 담은 포항교도소 사진전 개최

“한 민원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포항교도소(문병일 소장)는 5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아주 뜻 깊은 사진전을 본 민원실에서 전시하고 있어 많은 민원인민원부터 격려와 찬사를 사고 있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봄을 담은 포항교도소”이며 이번 행사는 관내 직원들에게 업무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 마련한 화합의 사진전이 되고 있다.

포항교도소는 2006년 개소 후 10년 동안 영산홍이 만개한 봄 풍경을 주제로 한 구내·외 아름다운 풍경 사진 20점을 전시함으로써 접견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심신에 안정과 위로를 주고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친근한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문병일 소장(포항교도소)

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접견 및 관내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경직된 모습이 아닌 봄에 물든 영산홍과 조화를 이루는 기관의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작은 여유를 갖고 싱그러움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접견을 위해 민원실에 방문한 한 시민을 전시된 사진을 보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에 있는 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살아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면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아름

다운 사진전을 하는 것에 감사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난 월례회 때에는 보이 스피킹으로 들어온 한 수용자가 자살을 하기 위해 유서를 쓴 것을 한 직원이 발견하여 그 수용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삶의 소망을 심어 주고 자살을 방지 하였고, 직원 월례회에선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수용자들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배려하면 수용자에게 얼마든지 삶의 소망을 줄 수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포항교도소 문병일 소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보다 더 수용자에게 세심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사랑으로 접근하면 그것이 교도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진전을 시작으로 민원인들에게나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학 기자



예수재단, 한동위와 연대해 동성에 축제 원천봉쇄 결의

예수재단(대표 임요한 목사)는 “한국교회 동성에 대책 위원회”(한동위)와 국내 교계인사 및 단체장들과 종로 5가에서 회동해 다음달 6월 예정인 동성에 축제에 대해 단호히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과 교계 각 기관이 하나의 채널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아울러 동성에 축제를 허용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행사를 취소하지 않음시 퇴진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목사는 “진리수호 예수국민축제/기도회”(예수한국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오는 6월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시청 앞에서 열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동성에 축제 당일에도 애국 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행사를 갖는다. 이를 위해 1인 시위 및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동성의 폐해를 알리고 있다. 지금은 한국 교회의 1200만 성도가 동성에 근절을 막아야 한다.

국제협력기구 이사장, 에스더기 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는 동성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반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우리에게선교사를 파송한 미국교회가 동성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법원에서 5:4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고, 미국의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된 나라가 20개국,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 된 나라가 80개국으로 4배가 더 많다. 하지만, 선진국 법으로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의 여론을 이끌고 세계의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 되지도 않았고, 합법화 되지도 않은 중립지대의 나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성에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 세 번에 걸쳐서 입법 발의 되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하지는 말은 단순히 욕하지 말고 버려지 말고 양파 시키는 그런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하면 대한민국 누구나, 2년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만 가르치고 동성간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라는 일에 담기도 힘든 성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학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별 금지법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2007년 2010년 2013년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었다. 동성에 차별금지법은 일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오직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이 존재하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서울 한복판인 서울시장 광장에서 동성애를 쿼어 축제가 행해졌고, 올해도 동성에 쿼어축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허락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런 악법을 1200만 성도들과 한국교계가 막아야 한다. 한마디로 동성에 차별금지법이란 극악무도한 법이며 아울러 이슬람을 적극 지지하고, 간통죄를 부활시켜 나가야 한다.

2016 한국마사회와 나눔과 기쁨이 함께하는

“밀반찬 지원 사업 발대식”가져

2016.5월 2일(월)오후 3시 인천시 중구 재물랑로173 신포소망교회에서 나눔과 기쁨 중구 지회 주

최로 진행되었다. 사무총장 김성권 목사(나눔과 기쁨)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으

며 심재만 목사(나눔과 기쁨 인천연합회 중경회장)가 기도, 찬양, 철 목사(성광교회 담임)는 행 나눔과 섬김을 잘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나눔과 섬김을 잘하는 자요 나눔과 봉사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면서 나눔과 섬김을 잘하는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라고 전했다. 따라서 최병현 목사(남동구 지부 중경지부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국회의원 안상수는 “만찬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나눔과 기쁨, 밀반찬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했으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뜻깊은 행사를 통해 행사를 사회가 힐링이 되고 봉사자의 마음은 따뜻해지길 기원했다.

인천 한사리 기자

피종진 목사 5월 국내·외 성회 일정

2월) 오후	청주 권능교회(김종수 목사) ☎(043)271-1009
2월) ~ 4(수)	서울 주성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3월) 오전	대한민국 조찬기도회(실무총회장 남보석 목사)
	장소: 여전도회관 ☎ 010-7220-0733
3월) 오전	서울 장신대학교(총장 안주환 목사) ☎(031)799-9012
8(주일) 저녁	대전 주안교회(전정호 목사) ☎(041)531-7216
9월) 오전	경기도 광주 영광교회(이기종 목사) ☎(031)769-0692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성호 목사)
	의정부 한빛교회(지태영 목사) ☎(031)852-0005
	주최: 한국영성부흥사총연합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조영성 목사)
10월) ~12(목)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U.K.P.C. 총회장 피종진 목사[말라필리아노회] 서기 김영민 목사[아를란타동남부노회], 총무 김경순 목사[말라필리아노회])
	제198차 해외성회(198th Overseas Assembly)
13(월) ~15(수)	미국(U.S.A) 메릴랜드 영광장로교회(이성목 목사) ☎(443)600-2569
16(월) ~18(수)	미국(U.S.A) 메릴랜드 목회자세미나 ☎(410)852-0999
	주최: 메릴랜드기독교연합회(회장 김병은 목사)
19(월) ~20(수)	미국(U.S.A) 메릴랜드 성회
23(월) ~25(수)	미국(U.S.A) 살롱 Billy Graham Center 목회자세미나
	주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대표회장 최낙선 목사)
28(토) 오전	전기총신토(이사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영현 목사)
	장소: 가진 고성펜션 화포리 ☎ 010-6309-0003
30(월) 오후	부천 천양교회(정만철 목사) ☎ 010-3224-2345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2016년 5월~7월 집회일정

영광교회 전교인 체육대회(천마초등학교)

〈5월집회〉

- 5월 2일(월)~5월 4일(수) 소진우 목사 초청 성회
- 5월 6일(금) 철야 광은기도원
- 5월 9일(월)~5월 12일(목) 광은기도원
- 5월 23일(월)~5월 26일(목) 양평금식기도원
- 5월 29일(주일저녁)~5월 31일(화) 서울베데스다교회

〈6월~7월 집회〉

- 영광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일시: 2016년 6월 5일 (주일) 오후1시~6시
장소: 천마초등학교
- 6월 27일(월)~6월 30일(목) 청주금식수양관
- 7월 3일(주일저녁)~7월 6일(수) 목포꿈의교회
- 7월 17일(주일저녁)~7월 20일(수) 부여수양관



강사 조강수 목사
연료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영광교회 담임목사